

# 쉿, 비밀! 이젠 움직일 수 있어!

지은이 최명숙 그림이 정다운





저는 7살이에요.  
이름은 소양이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화상병원 중환자실 맨 구석자리에요.  
저는 너무나 슬퍼요.  
아프고, 아프고, 또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눈을 깜빡깜빡 거리며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저는 모기가 너무 싫어요.  
밤에 잘 때 모기가 콕 물면 발갱게 부어올라 가려우니까요.  
모기가 나타나면 손바닥으로 ' 짹 ' 짹 ' 짹 ' 하면서  
열심히 모기를 잡았어요.  
지금은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 짹 ' 짹 ' 짹 ' 하면서  
모기를 잡을 수 없어요.  
모기가 더욱더 싫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눈을 깜빡깜빡 거리며 천장과 눈싸움 중이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기 한마리가 작은 소리로  
'앵~앵~앵' 거리며 저한테 왔어요.

"안녕?년 이름이 뭐야?" 하고 모기가 물었어요.

"난 소양이야"

"그렇구나, 난 모기라고 해.  
소양아,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너의 피를 먹을 거야"

"싫어, 싫어" 저는 고개를 마구 흔들었어요.

모기는 지금 피를 안 먹으면 죽을 거 같다고 했어요.  
저는 싫다고 외쳤지만 모기는 들을 체도 안 했어요.



“발가락이 제일 맛있으니깐 발가락으로 가야지” 하며  
모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소양아, 너 발가락이 안 보여, 너 발가락은 어디에 있니?”

“야! 나 발에 화상 입었어, 저리 가!!”

“에이, 난 발가락이 제일 좋은데! 그럼 맛이 있는 다리로 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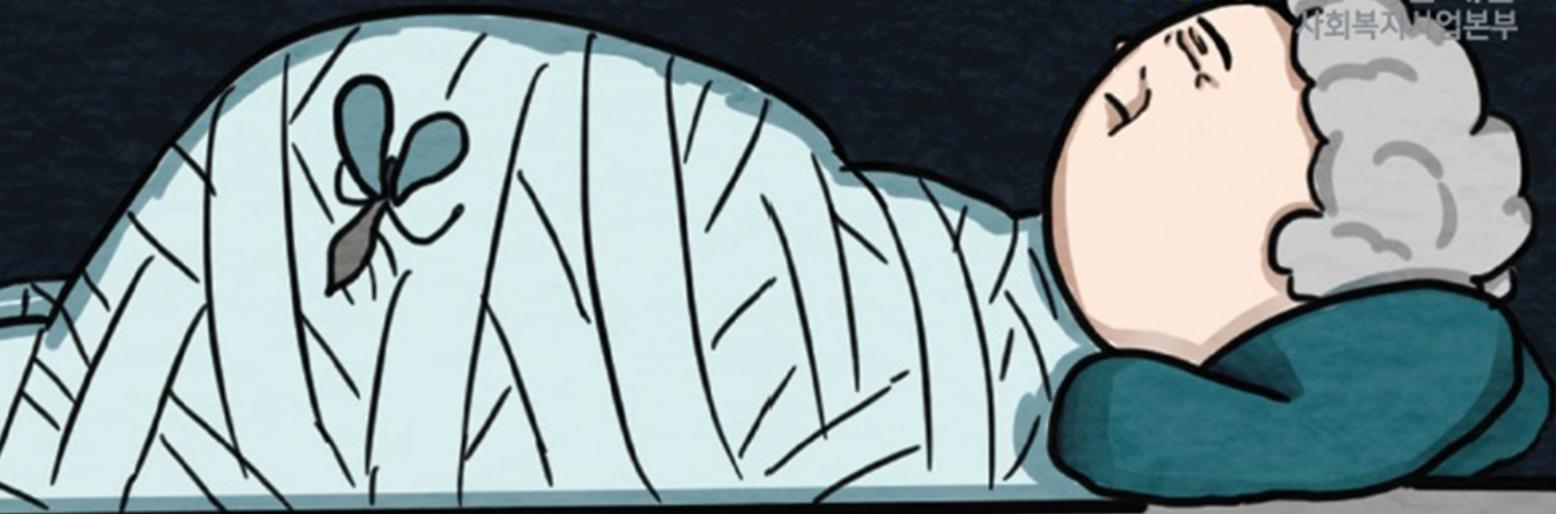
전 약이 올라 이를 빠득빠득 갈았어요.



“소양아, 너 다리도 안 보여.”  
다시 모기가 날아왔어요.

“아직도 안 갔어? 다리도 다쳤잖아, 붕대 감은 거 안 보여?”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뭐? 다리도 다쳤다고? 그럼 뭘먹지? 팔이라도 먹어야 겠다”  
모기는 제 팔로 날아갔어요.



“머야? 너 팔도 다쳤어? 팔도 안 보이잖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넌 먹을게 없구나,  
에이~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가야겠다”

저는 그 순간 잠시 갈등했어요.  
이놈의 모기를 잡고 싶지만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힘없는 할머니에게 보낼수 없었어요.  
옆 침대에 계시는 할머니는 저보다 더 많은 붕대를 감았어요.  
온몸에 얼굴까지 붕대가 감겨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파서 울어요.

“가도 소용없을 거야, 할머니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져있어.  
아무것도 안 보일거야”

“거짓말, 피를 못 먹게 하려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하며  
할머니에게로 땡~ 날아갔어요.



모기는 할머니한테 가서 웅~웅~웅 거리며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어요.  
그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놈의 모기 시끄러워 죽겠네, 네 이놈 저리 가지 못할까!”



모기는 화들짝 놀라 저한테 다시 왔어요.

“휴, 놀래라, 근데 진짜 저 할머니는 너보다 더 안보이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하며 제 얼굴 가까이 와서 앵앵 거렸어요.

“야, 너 얼굴은 붕대가 없어서 잘 보이네,  
배고프니깐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저는 얼굴을 흔들었어요.

“안돼!! 저리 좀 가라고!! 저리 가!!”



하지만 모기는 듣지도 않고 왼쪽 뺨에 앉아  
'쪽쪽쪽' 소리 내며 피를 빨아먹었어요.  
모기는 동그랗게 나온 배를 두드렸어요.

“와, 배부르다. 다음에 또 보자” 하며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분하고 화가 나서 눈만 뒹굴뒹굴 굴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소양아, 모기한테 물렸구나, 쫓쫓, 가려워서 어찌 누”



병원에 봄에 왔는데, 이젠 여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얀 붕대를 팔, 다리부터 풀었어요.  
원래 피부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꼭 알록달록한 장난감 네모 블록을 모아둔 것 같아요.  
이젠 팔다리가 보여요.  
곧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옆자리 할머니도 집에 갈 수 있대요!



‘엥~엥~엥’

“소양아 안녕, 나 왔다”  
저의 피를 빨아먹고 생 가버린 그때 그 모기가 나타났어요.

‘뭐야! 그 녀석 아냐? 잊고 있었는데, 잘 걸렸다.  
이번엔 손바닥으로 ‘ 짹 ’ 잡아주겠어.’

일부러 이불을 감싸고 꼼짝 않고 누워있었어요.  
“너 발 아직도 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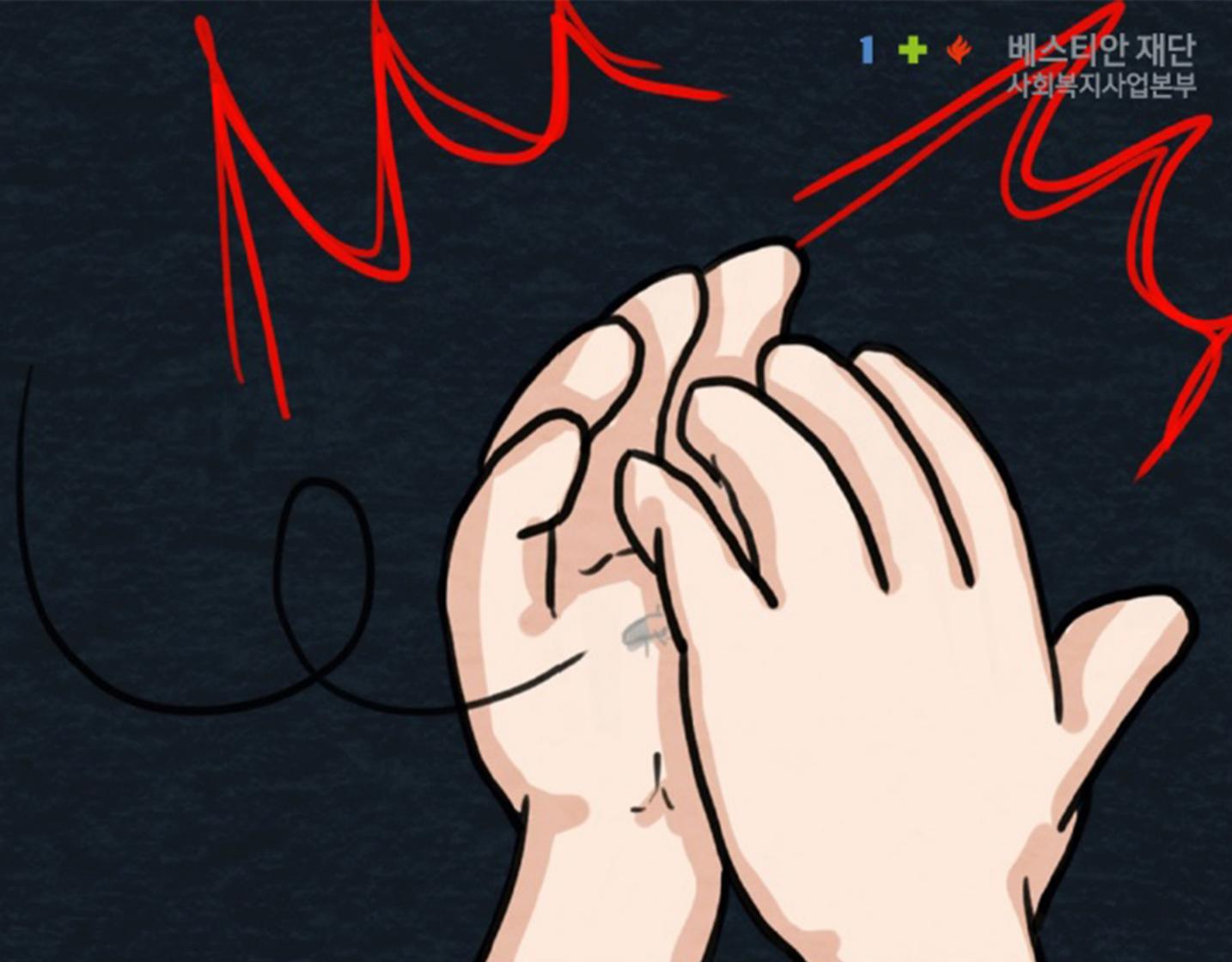
“응, 아직도 아파,”

“그럼, 다리는?”

“다리도 아파,”

“팔은?”

“팔? 으음... 팔은 말이야...”



그 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손바닥을 활짝 피며  
“너, 오늘 죽었어,” 하며  
‘ 짹’ 하고 모기를 잡았어요.



모기가 납작 찌그러져 죽어 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바닥을 흔들며 활짝 웃었어요.

복수 성공!



우리 주위에는 많은 화상인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상인들은 치료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감을 느낍니다.  
화상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해봅니다.  
1년동안 회사도 퇴직하고 나의 곁에 항상 있어준 명희언니,  
그리고 엄마, 친구들, 이런 뜻깊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베스티안 손은령 사회복지사 선생님, 아이앤맘 친구들,,,  
마지막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지은이 최명숙



처음 동화를 그린다는 걸 들었을 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지  
못하거나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명숙 작가님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게 된 동화가 재미있어서 즐겁게 그릴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신 최명숙 작가님과 베스티안 손은령 선생님  
두 분 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그린이 정다운

**쉿, 비밀! 이젠 움직일 수 있어**  
© 최명숙, 2016

지은이 최명숙  
그린이 정다운  
편집 손은령  
펴낸곳 베스티안재단(<http://ibestian.org/>)  
자문 김미자(글), 박현욱(그림)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은이와  
베스티안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